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동반자

'한국치매가족회'



◀32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가족 내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그 질병이 치매일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병으로 인정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치료와 이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노망·망령'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 대부분이 수치스럽게 여겨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 이런 현실에 치매환

자와 가족들에게 올바른 간호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적 쉼터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

"한국치매가족회"

1991년 3월 제 1회 치매가족모임 이후로 지난 12월 제 36회의 모임을 가진 민간단체이다.

"세계 4대 질병의 하나인 치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가족들만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의 황폐화 되어가는 인격을 바라보며 어떻게 간호해야 좋을지 몰라 힘겹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 또한 우리 현실이고

요. 이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문제인식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매가족회에서 사회 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선경씨의 이야기이다.

치매가족회는 가족모임 결성 이후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94년 치매상담전화선을 개설, 치매가족을 겪었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가족들의 고통과 가정간호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또 필요한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을 알선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격월로 개최하는 치매가족모임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치매

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간호 방법, 새로운 정보에 대해 강의를 하며 가족간담회를 통해 환자 뿐 아니라 간병에 지쳐있는 보호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호자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치매에 관련한 서적 발간, 치매 간호방법 및 국내외 정보제공을 위한 치매정보지 '효심' 지를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치매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용품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요·변 실금 팬티, 이동식

여 국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 9월 21일에는 '세계치매의 날'을 기념하여 각계인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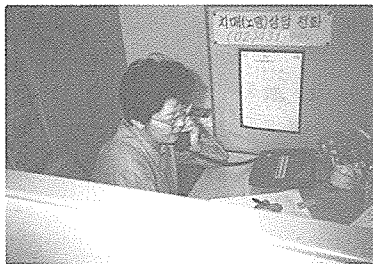
요즈음 가족회에서는 '배회치매노인 구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치매노인은 공간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림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리 환자의 주소, 성명, 사진, 연락처 등을 전국의 부랑자 보호시

료해 드렸으면 좀더 나은 삶을 누리셨을 텐데, 그 당시 치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한없이 후회스러워요."

치매가족회원이며 치매전화 상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덕규씨의 이야기이다. 가족의 치매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그는 이제는 환자와 치매가족들의 애환을 들으며 같이 답답해 하고, 같이 한숨짓고 있다.

가족들이 힘든 나머지 환자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독한 마음을 먹고 난 후 느끼



변기, 욕창방지용 에어매트 등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용품들이 전시·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활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핸드레일. 환자 혼자서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조기구로 자칫 보호자에게만 의존해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외상상태를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치매가족회는 1994년 국제알츠하이머 협회(A.D.I)에 정식 가입하

설 및 관계기관에 입력함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들의 간호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의 배회구조망 연계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두 분 다 법 없이도 사셨을 분이신데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원인을 찾아 치

는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박덕규씨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치매가족모임에 참가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위로받아 새 힘을 얻어 치료와 간호를 지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고통받는 치매가족의 상담자로 전화기 앞에 앉는다. [2]

한국치매가족회 - 치매상담 전화 (02) 431 - 9993

치매가족회 전화 (02) 431 - 9963